

書評

李杜鉉 著；韓國假面劇

文化公報部(1969. 12) 刊行

X X + 456pp. (46倍版)

I

일찌기 “韓國新劇史研究”를 著述한 바 있는 이 책의 著者は “假面の 終着驛은 演劇”이라고 밝히고, 이어서 “韓國演劇史研究에 뜻을 두어 假面劇을 研究하게 되고, 結局 나의 30代의 大部分을 mask mania로 보내고 말았다”고 이 책의 “머리말”에서 述懷하였다. 이로 미루어 이 책의 著者は 韓國의 假面劇을 舞踊이나 民俗資料의 角度에서 가 아니라 演劇이라는 側面에서 接近하려는 意圖를 알 수 있다. 또한 韓國演劇의 하나인 이 假面劇을 純粹한 演劇學徒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演劇史學徒로서 살피려는 意圖도 아울러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著者は “이 冊은 歷史民俗學的方法으로 三國時代以來 李朝末까지의 韓國假面劇發達의 史的考察과, 韓國假面 및 假面劇의 民俗誌的資料로서 構成하였다”고 이 冊의 內容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著者の 解明을 다른 말로 바꿔서 表現한다면, 이 冊의 內容은 크게 歷史文獻에 依한 研究結果와 現地調査에 依한 資料의

蒐集과 整理라는 두 部分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歷史文獻에 依한 研究>라는 말을 그저 쉽게 쓸 수는 있다. 그러나 韓國의 歷史文獻을 뒤져 본 사람이면 누구나 얼른 이해가 가리라고 믿지마는 이 假面劇에 關한 限 그것에 關聯된 資料를 찾아내기란 그야말로 滄海의 一粟이다. 著者は 勿論 이런 말이 이 책의 어느 구석에서도 비친적이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 提示한 文獻的인 資料中에는 몇달이 걸려서 겨우 몇줄의 記錄을 얻어낸 것이 수두룩이 있을 것으로 推測된다. 東學亂이나 壬辰倭亂, 또는 花郎研究나 實學研究를 위한 資料蒐集과는 그 努力度에 있어서의 差異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 책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페이지가 歷史民俗學에 依한 韓國가면극의 발달과정을 밝히는 데에 配當되고 있다.

오늘날 韓國의 學界에는 이른바 現地調査라는 것이 널리 流行되고 있다. 民謠·傳說·民俗·方言 등 많은 調査對象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假面劇에 關한 限 다른 對象과는 달리 겪어야 할 많은 難點이 있을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假面과 假面劇이 傳承되고 있는 地域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나마도 分斷된 國土에서 우리가 직접 踏査할 수 없는 地域의 調査는 그 곳에서 옮겨온 사람들을 對象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假面이나 假面劇이 傳承되고 있는 地域을 찾아내었다 손치드라도 有能한 藝能保有者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難點이 또 있을 것이다. 또 실사 有能한 藝能保有者를 發見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人間的인 交流가 成立되어야 한다. 洞口앞 정자나무 밑이나 敬老堂을 찾아가서 民譚이나 方言을 採集하듯 말바닥과 땀으로만 可能한 現地調査가 아님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이책의 반이 넘는 220페이지에 해당하는 調査報告는 그 全部가 著者自身이 直接 採錄한 새로운 資料들이다.

이렇게 文獻研究나 現地調査가 꼭 같이 어려운 일이었기로 著者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첫선을 보았을 때, 내가 아내의 얼굴을 소무탈과 같다고 느꼈다면, 또 臨終 때의 苦惱에 찬 아버님의 얼굴을 山臺의 눈썹적이 바가지탈과 같다고 느꼈다면 하는 것은 모두다 假面과 더불어 살아온 나의 지난날의 因果요 業報라 할 것이다”라고 할만큼 그는 이 課題에 執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著者의 執念과 執着으로 이루어진 이 책을 앞에 놓고 우리는 우선 敬虔한 마음으로 웃것을 여미고 그의 勞苦에 감사를 들어 마땅한 줄로 안다. 솔직히 말해서 첫선을 본 아내의 얼굴과, 臨終 때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탈바가지를 聯想했다는 著者의 述懷를 읽었을 때에 筆者는 戰慄에 가까운 感激을 느꼈던 것이다.

Ⅱ

이 책의 前半部인 歷史民俗學的 研究는 크게 序章 假面の 始源／第一章 原始・民俗假面概觀／第二章 韓國假面的 名義／第三章 韓國假面劇의 發達／第四章 韓國假面 및 假面劇의 傳承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韓國假面劇發達의 史的考察은 이미 1933년에 初版이 刊行된 故金在喆의 “朝鮮演劇史”에서 그 基礎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로부터 40年, 어느 누구도 그 동안의 斯學의 業績을 綜合 整理하여 進展된 이 方面의 成果를 提示하지 못했던 것을 著者의 執念과 執着은 마침내 韓國假面劇의 發達過程을 非單 歷史民俗學的方法 뿐만이 아니라 比較 民俗學的方法까지 援用함으로써 瞭然하게 밝혀 주었다. 우선 <序章 假面的 始源>에서는 全世界的인 視野에서, 假面的 始源을 宗教儀式 즉 呪術宗教的 (magico-religious) 儀式에서 찾아야 한다는 通說을 肯定的으로 認識하면서 信仰假面에서 출발하여 점차로 藝能假面으로 발달하였을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다음 <第1章 原始・民俗假面概觀>에서는, 韓國의 假面을 信仰假面과 藝能假面으로 大別하고, 信仰假面에는 辟邪假面, 醫術假面, 靈魂假面, 神聖假面, 追憶假面, 토오텐假面, 祈雨假面, 狩獵假面, 戰爭假面 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하고, 藝能假面으로는 舞踊假面과 演劇假面을 들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假面들은 全世界에 널리 分布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分類에 따라, <1. 狩獵假面>에서는 現存하는 民俗과 文獻記錄에 남아 있는 獅子·虎·狼 등을 狩獵假面의 유형이라고 하였다. 다음 <2. 토오렘假面>에서는, 檀君神話에 나오는 곰과 밭, 夫餘의 소, 濊의 虎祭 등 文獻記錄을 비롯하여 東海岸一帶의 獅子놀이, 統營五廣大의 포수탈科場에 나오는 “담보탈”이나 武班의 虎頭牌 三虎劍 같은 民俗資料를 토오렘 假面의 遺物로 본다고 하였다. <3. 辟邪假面>에서는 處容面, 장승의 鬼面을 비롯하여 新羅의 瓦鬼, 門樓의 鬼面, 防牌의 鬼面 등을 例로 들고 있다. <4. 鑿術假面>의 例로는, “靑坡劇談”과 “三國遺事”에 나오는 說話를 紹介하고, 現存 民俗으로는 濟州島의 “영감놀이”를 들었다. 또 <5. 靈魂假面>에서는, “三國遺事”의 “山神假面舞說話”(處容郎條)와 “東國歲時記”의 記錄과 아울러 現存하는 “河回 別神굿”과 德物山 崔瑩 將軍堂에 모신 청계신, 곡광대, 소미씨, 늦도리 假面 및 慶南一帶의 “五廣大놀이”의 假面을 그 例로 들고 있다. 그 밖에 追憶假面 戰爭假面 등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言及하고 있다.

第Ⅱ章 “韓國假面的 名義”에서는 第一節에서 假面·광개·초란이 등의 名稱과 그 意義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第二節에서는 꼭두와 탈의 語源과 用例를 밝히고 있다. 比較言語 乃至는

比較民俗의 方法을 援用하여 從來의 諸說을 紹介 批判하면서 몇 가지 假說을 提示하는데 그치고 말았음은 慎重을 期하려는 著者의 學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어딘가 아쉬운데가 있는 것 같다.

다음 第Ⅲ章에서는 “韓國假面劇의 發達”을 論하였다. 第一節 “三國時代의 假面戲”에서 우선 (1)祭天儀禮와 假面戲라고 하여 夫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 濊의 擗天, 馬韓의 春祭, 駕洛의 禊浴 등 古代祭儀를 現存하는 洞神祭와 假面舞劇을 통하여 그 內容을 復元할 수 있을 것으로 主張하고 古代祭儀에서 假面舞의 可能性을 立證하려고 하였다. 다음 (2)의 “高句麗樂과 西域樂”에서는, 日本으로 傳해진 三國樂(新羅·百濟·高句麗)中에서 高句麗樂이 三國樂을 代表하였고, 漢武帝 以來 西域과의 交易으로 西方文化가 東洋으로 流入됨에 따라 西域樂이 高句麗의 各種 演戲에 影響을 미쳤을 것을 論證하고 있다. (3)의 “百濟樂과 伎樂”에서는, 百濟樂이 日本에 미친 影響과 伎樂과 現存 假面劇과의 關係에 대하여 論及하고 있다.

다음 (4) “新羅鄉樂과 假面戲”에서는 i) 劍舞(黃昌郎)는 假面童子舞劍戲라고 推定하였고, ii) “無尋舞”에 대하여는, 金在誥의 假面舞說을 否認하고 바가지춤의 佛敎的 潤色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iii) “處容歌舞”에서는, 辟邪假面으로서 龍神假面舞에서 由來하였

을 것으로 推定하였다. 그것이 다시 山神祭舞와 複合된 위에 大陸系 假面舞의 영향을 입어 二次 三次的으로 變容되어 驅儺舞와 宴樂舞로 發展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iv) “五伎”에서는, 崔致遠의 “鄉樂雜詠五首”의 內容을 바탕으로, 崔南善, 梁在淵, 金學主, 李惠求 등 諸氏의 學說을 소개하고, 다시 現存하는 “五廣大탈놀이”와 比較하면서 <草溪 밤다리 五廣大탈놀이>와의 관련성을 推定하였다. 그리고 五伎를 다시 ①金丸 ②月顛 ③大面 ④束壽 ⑤狻猊의 순서에 따라 個別的으로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⑤狻猊項은 歷史文獻과 現存 民俗資料와 比較民俗學의 方法이 總動員된 勞作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v) 兜率歌舞에서는 儒理王五年의 兜率歌를 從來 단순한 歌謠로만 보아온 것을 批判하고 歌舞樂의 綜合體일 것이며 日本의 “烏蘇”와 比較하면서 兜率歌舞도 假面舞였을 것이라고 推論하였다.

다음 第2節 “高麗時代의 山臺雜劇”에서는, (1) “山臺雜劇”으로 i) “燃燈會” “八關會와 百戲”, 그리고 ii) “教坊歌舞戲” 등을 들어 新羅遺風을 繼承한 高麗의 華麗雄壯한 演戲를 論證하였다. 다시 (2) “儺戲”에서는 嘉禮가 아닌 凶禮에서 辟邪進慶의 行事로서의 몇 가지 假面戲를 들고 있다. (3)의 “調戲”에서는 <笑謔之戲>인 調戲가 話劇의 出發點이 된다고 하였다. 그 例로는 高麗의 開國功臣인 金樂 申崇謙의 假像戲를 비롯하여 優戲·俳優戲·倡優戲 등에서

才談을 주로 한 것들을 들고 있다. 다음 끝으로 (5)에서 “高麗의 才人·廣大”에 관해서 論及하고 있다. 즉 <演劇的인 行事의 公演을 擔當한 職業的인 俳優의 一團>을 “優人” 또는 “倡優”라 하였고 “廣大”라고도 불렀는데, 이들은 市井商工人들과 함께 成長하였다고 推論하고 있다.

다음 第3節 “李朝時代의 山臺儺禮”에서는, (1) “山臺儺禮”로 “規式之戲”는 山臺都監 또는 儺禮都監이 관장하여 주로 中國使臣을 迎接할 때에 공연하였으며, 그 밖에 많은 宴樂 歡娛時에 公演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 ii) “廣大笑謔之戲”는 話劇的인 展開過程을 더듬어 알 수 있다고 보았다. (2) “李朝의 才人·廣大”에서는, 주로 그들의 生活樣相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社會的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3)의 “山臺都監系統劇의 傳承”에서는, “山臺都監劇”이 麗末 李初에 盛行한 “山臺雜劇”과는 區別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形成過程을 <歌+舞+叙事詩→山臺都監劇>과 같은 圖式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推定하였다. 또 이 系統 假面戲의 分布狀態 및 演出形態 그리고 構造등도 概觀하고 있다.

다음 第Ⅳ章 “韓國假面 및 假面劇의 傳承”은 歷史文獻과 現地踏査를 아울러 叙述한 部分으로, 第1節 “巫俗假面”에서는, (1) “壺杆塚 出土 木心漆面”을 들어 新羅時代에 辟邪假面이 있

있음을 論證하였다. (2)“德物山 假面”에서는 京畿一圓의 巫覡의 本山인 開城 德勿山の 神聖假面 또는 靈魂假面을 들여 優人和 巫覡의 關係를 밝힘으로써 巫俗假面의 樣態를 論證하였다. 第2節 “農耕儀禮와 假面劇”에서는, (1)“假農作과 立春굿”이라 하여 麗·李朝를 通하여 傳해오는 遺風으로 慶北 永川郡과 濟州島에 現傳하는 模擬農耕儀禮의 例를 들고 있다. 다음 (2)“楊州소놀이굿”에서는, i)歷史的 由來를 夫餘의 祭天儀式에서 찾을 수 있다 하고, 農耕 社會에서는 世界 어느 民族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現在도 慶南 昌寧郡 靈山과 濟州島에서 木牛 戲를 하고 있으며, 楊州소놀이굿을 仔詳하게 論及하고 있다. ii)“特徵”은 娛樂的 藝能으로서 儀禮에서 演戲로 發展하는 過程을 잘 보여주는 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形態面에서의 특징은 소놀이굿은 帝釋드름에 이어서 놀이를 시작하며, 馬夫의 對話形式으로 進行되고, 무당과 樂士, 馬夫와 結馬夫, 假裝한 소등 主要配役과 많은 구경꾼의 參加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iii)“假面 및 衣裳과 諸道具”, iv)“演戲者”의 名單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第3節 “城隍祭假面”에서는, (1)“河回別神굿놀이”를 部落祭로서 城隍神에 대한 大祭와 立市와 結付된 經濟나 娛樂的 動機로서 舉行되는 臨時大祭의 두 가지로 나누어 考察하고 있다. 특히 이

地方에는 假面을 神體로 모시는 것이 他地方과 다르다고 하였다. 다음에는 (2)“河回假面”을 國寶 第121號로서 주지·각시·중·양반·초랭이·선비·이매·부네·백정·할미 등을 그 모습과 特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에서는 역시 國寶 第121號인 “屏山假面”을 소개하였다. (4)“河回假面 製作者에 對한 傳說”에서는 許道令說과 安道令說의 두 가지가 있는 바 許道令說을 取했을 때 河回假面의 製作年代는 高麗中葉까지 치켜올라갈 수 있으리라 하였다. (5)“阿回 및 屏山假面製作의 技法”에서는 <얼굴을 숙이면 어둡고 서러운 表情이 되나 얼굴을 뒤로 꺾으면 밝고 웃는 얼굴로도 될 수 있는 表情의 變化를 가져옴을 말한다. 固定된 表情을 가진 假面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可變의 幅을 갖게 했다는 것은 先人들의 오랜 經驗에서 얻은 發明의 結果가 아닐 수 없다.>하여 美學的인 效果까지 解明하고, 다시 日本의 假面들과 比較하여 假面史研究의 資料로서 그 價値를 評價하고 있다. 끝으로 (6)“長姓”에서는, 部落 守護神으로서의 機能, 그 形態 및 由來를 考察하고 比較民俗的인 方法으로 起源을 밝혀 놓았다.

이상으로서 이 책의 前半部인 歷史 文獻을 中心으로한 韓國 假面劇의 史的 展開를 소개하였거니와, 200페이지에 亙하는 滔滔한 論證과 豊富한 資料

는 100點의 圖版이 뒷받침하고 있다. 金在喆의 “朝鮮演劇史”와 比較하였을 때 實로 隔世의 感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든다면, 첫째로 이 책의 性質上 꼭 있어야 할 “研究史”가 없다는 것은 저지기 섭섭한 일이다. 지난날 이 部門에 관하여 누가 어떤 程度의 業績을 남겨 주었는지를 瞭然하게 정리하여 提示하였더라면 이 책은 더욱 돋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各節의 末尾에 豊富하게 提示된 脚注에는 勿論 研究史를 扎实하게 할 充分한 根據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研究史가 提示되지 않은 脚注만으로는 저지기 讀者를 當황하게 하기 마련이다. 다음 둘째로는, 從來의 大部分의 이 나라 學術書籍이 그렇듯이 bibliogrophy가 빠져 있다는 點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脚注로서 引用文獻을 扎实할 수 있게는 되겠으나 參考文獻은 整然하게 目錄으로 提示되어야 한다는 것은 著者 自身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推察되는 그 期待를 저바린 것은 저지기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機會가 있으면 補充하는 것이 좋으리라 믿는다.

Ⅲ

이 책의 後半部인 第Ⅴ章 “韓國假面劇 및 人形劇誌”(pp.201~421)는 10餘年間 著者가 直接採錄 踏查한 假面劇 및 人形劇에 關한 資料의 集大成이다. 勿論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採

錄報告된 資料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學術的인 面에서 綜合된 報告書는 처음이다. 특히 그 內容이 各圖對象劇의 歷史的 由來를 비롯하여, 그 特徵, 춤사위, 假面, 衣裳, 諸道具, 그리고 現存 演戲者의 略歷까지를 尙상히 調查 報告한 것은 이 책이 하나의 歷史的인 意義를 충분히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著者가 이 調查를 遂行하는 동안 파문했던 演戲者와 假面을 發掘하여 或은 國寶로 或은 人間文化財로 指定함으로써 煙沒 直前의 貴重한 文化財를 救濟하여 밝은 햇볕을 보게 한 그 功績도 아울러 높이 評價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第1節 “楊州別山臺놀이”에서는, (1) “歷史的 由來”를 “서울 中心의 京畿地方에서 演戲되어온 山臺都監劇의 一分派”라고 밝히고, 오늘날 <山臺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하였다. (2) “特徵”은, 전체적인 틀은 잡혀 있으나 伸縮性이 自由롭고, 춤사위가 典雅하며, 比較的 寫實性이 豊富하다고 하였다. (3) “山臺춤”에서는 歷代의 춤名手를 들고 그들의 長技를 소개하였으며, <그드름式 춤> 11종, <깨끼式 춤> 10종의 춤사위를 설명하고 있다. (4) “假面 및 衣裳과 諸道具”에서는 17종의 假面에 관하여 그 材料, 形狀, 크기, 衣裳등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諸道具도 들어 설명하였다. (5) “演戲者”로는 現存하는 13名의 藝能保有者를 生年月日本籍, 住所, 職業, 經歷, 保有藝能種

類 등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6) “楊州 別山臺놀이 台詞”는, 이미 發表된 다섯가지의 台詞와는 달리 1958년에 著者가 朴俊燮, 金星泰 兩翁의 口述한 것을 採錄한 台詞이다. 이제 이 책에서 採錄한 台詞와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山台都監劇>(勝寫本)의 差異를 조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음]: 네에밀 할 놈의 데 여러 해포만에 나왔더니 아레가 휘청휘청하고 어찌 어수선 산란하고나. (本書)

[음]: 여러 해포만에 왔더니 精神이 썩하다. 옛날 하던 지저귀나 한번 해 불가. (서울大學本)

그리고 이 책에서는 8科場으로 정리한 것을 서울大學本에서는 11科場으로 정리한 것도 差異點이라 하겠다. 그러나 台詞의 分量은 이 책의 內容이 훨씬 많고 또한 順序와 構成을 理解하는 데에 훨씬 便利하도록 親切한 說明을 부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다음 第2節 “鳳山탈춤”에서는, (1) 歷史的 由來”를 <山台都監系統劇의 한 分派인 海西型>이라 보았다. 鳳山탈춤의 中興者로는 약 200여년 전의 鳳山의 吏屬 安草木(첫목—<初目>의 瓦전?)으로 일러 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歷代의 名手의 이름을 들고 <世襲되어 온 地方吏屬들이 이 놀이를 代代로 놀아왔다고 하였다. (2) “特徵”으로는, 海西型탈춤을 다시 鳳山탈춤型和 海州탈춤型的 둘로 나누고, 다른 地方의 假

面劇과 그 構造는 같으나 춤사위가 大陸的인 健舞의 영향을 받은 것이 그 특징이라 하였다. 특히 팔목춤에서 차례로 다른 鬼面이 나타나 먼저 鬼面을 내모는 것은 辟邪舞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假面 역시 寫實的인 楊州山臺假面과는 달리 凹凸屈曲이 심하여 難禮用假面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衣裳은 화려한 편이며 台詞에 漢詩句가 많은 것과 Parody가 많은 것도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 科場은 크게 七科場으로 나눌 수 있는 바, 목중, 노장, 양반, 미얄의 독립된 네 개의 놀이에 사당춤, 사자춤, 원승이 놀이가 곁들여 전체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宗教的 意義보다는 娛樂的 要素가 더 우세하다고 하였다. 또 內容은 辟邪의 儀式舞 破戒僧의 諷刺, 兩班에 대한 侮辱, 婁妾의 葛藤 庶民生活의 困窮狀을 暴露하되, 익살과 웃음을 通하여 劇을 展開시켜 나간다고 하였다. (3) “假面 및 衣裳과 諸道具”에서는 16種에 달하는 假面의 實測과 形狀 및 資料와 아울러 衣裳을 說明하였다. (4) “演戲者”로서 藝能保有 10여명의 生年月日, 本籍, 住所, 職業, 經歷 및 保有藝能種類를 자세히 調査 報告하고 있다. 끝으로 (5) “鳳山탈춤 臺詞”는 1956年 8월에 採錄한 金辰玉, 閔千植의 口述內容이다. 이 鳳山탈춤 臺詞는 1946년에 採集한 宋錫夏, 任哲宰, 崔常壽 등 諸氏의 內容과 다른 것이 그 특색이라 하겠다.

다음 第3節 “統營 및 固城五廣大”에 서는, (1) “歷史的 由來”를 韓國假面劇의 嶺南型이라 일컬고 그 發生地는 洛東江邊인 草溪 밤마리(栗旨)라 하였다. 즉 밤마리 장터 대광대패들이 시작하여 漸次로 傳播되어 慶南의 內陸과 海岸線 一帶에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傳來하는 傳說로 미루어 山臺都監劇 系統의 假面劇일 可能性을 지적하고 있다. 또 歷代의 이름난 演戲者를 소개하면서 그 傳承過程을 論證하였다. (2) “特徵”으로는, 五行說에 依據한 「五」라는 數字가 基準이 되어 五方神將舞, 五兩班, 다섯개의 문동假面, 五廣大, 五科場 등으로 構成되었으며, 演出 形態는 춤이 主가 되고 臺詞와 노래와 動作이 곁들여 演技되는 것은 다른 假面劇과 共通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五廣大 역시 처음에는 宗教的 意義(辟邪行事)에서 演戲되었을 것이나 차차로 娛樂的 要素가 優勢하여져서 그 時期도 春秋의 놀기 좋은 때를 고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3)의 “假面 및 衣裳과 諸道具”에서는, 統營五廣大놀이에서 25種, 固城五廣大놀이에서 12種의 假面을 들어 資料, 形狀, 크기, 衣裳과 道具등을 설명하고 있다. (4)의 “演戲者”에서는 統營五廣大 7명, 固城五廣大 6명, 그리고 東萊野遊와 水營野遊, 駕洛 金海五廣大 등의 演戲者 몇분을 아울러 소개하였다. (5) “統營 五廣大 臺詞”는 張在奉, 吳正斗의 口述을 1964年 9월에 採錄한

것이고, (6) “固城五廣大 臺詞”는 1964年 8월에 金昌俊, 南相國의 口述을 採錄한 것이다.

다음 第4節 “北靑 獅子놀이”에서는, (1) “歷史的 由來”를 咸南 北靑郡 全城에서 널리 行해진 것으로 그 主目的은 辟邪進慶에 있으며, 正月 14日 밤에 시작하여 15日 새벽까지 놀고, 16日 이후에는 招請하는 有志의 집을 든다고 하였다. (2) “特徵”에서는 現存한 民俗劇의 獅子舞로 鳳山탈춤과 統營五廣大와 水營野遊를 들 수 있으나, 이 北靑獅子舞가 가장 巧妙하고 힘찬 것이 그 특징이라 하였다. 또 中國과 日本의 獅子舞와 比較함으로써 伎樂 및 舞樂 등 大陸系 또는 北方系 獅子舞가 民俗化된 것이라고 하였다. (3) “假面 및 衣裳과 諸道具”에서는 12種의 假面 및 衣裳과 道具를 說明하였고, (4) “演戲者”로는 10명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越南人士들임은 勿論이다. (5) “北靑獅子놀이 臺詞”는 尹迎春, 馬義洙의 口述을 1966年 7월에 採錄한 것이다.

다음 第5節 “꼭두각시 놀음”에서는, (1) “歷史的 由來와 特徵”으로서, 우리나라 人形劇은 高句麗나 新羅時代에 이미 大陸으로부터 中國을 거쳐 輸入되었고 그 影響을 입었을 것이라는데 學界의 意見이 集約되고 있다고 指摘하였다. 그리고 韓國人形劇은 主로 京畿·忠淸·全羅·慶尙 등 南韓一帶에서 流浪演藝人에 의해서 많이 演出되었다고 하고, 이것 역시 山臺都監劇系

統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論證하였다. (2) “人形 및 諸道具”에서는, 18種의 人形을 材料, 形狀, 크기 및 道具들을 說明하였고, 現存하는 五名의 演戲者를 소개하였다. (5) “꼭두각시놀음 臺詞”는 1964年 4월에 南雲龍, 宋福山의 口述을 採錄한 것이다.

이상으로서 이 책의 第二部에 해당하는 부분을 훑어 보았거니와, 여기서도 역시 아쉬운 것은 研究史와 參考文獻 目錄을 整理하는 일이었다. 특히 各假面劇의 臺詞에 관해서는 이미 發表된 臺詞와의 比較와 그 特徵을 說明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의 著者가 國文學者이며 演劇學者인 이상, 그가 採錄한 臺詞를 中心으로 文學的인 面에서 接近이 있어야 마땅했을 것이나, 그 方面이 오

히려 소홀히 다루어진 것은 저르기 섭섭한 바 없지 않다고 하겠다. 이제는 발과 귀와 손으로 資料蒐集에만 滿足할 때는 지났다고 본다. 採錄한 資料를 어떻게 理解하고 鑑賞할 것인가를 提示해야 할 때가 왔다. 앞으로 著者는 이 方面에 좀더 깊은 關心을 기우려 第二의 業績을 내어 놓기를 期待하여 마지 않는다. 그러나 金在喆의 “朝鮮演劇史”以後 우리의 傳統劇에 關한 研究와 資料를 瞭然하게 理解할 수 있도록 한 이 책의 價値는 歷史的인 意義를 지닌 名著로 길이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數年來 國文學界에서 걸은 가장 큰 成果라는 讚辭가 결코 거짓이 아님을 다짐하면서 이 책의 소개를 끝내기로 한다.

鄭炳昱(서울大學校 文理大 教授)